

초점과 주제의 음성학적 관련성

김용범*†

광운대학교

Yong-Beom Kim. 2004. Focus, Topic and Their Phonetic Relevance. *Language and Information* 8.1, 27-52.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various notions involving focus and topic found in Korean and also employs phonetic measures to verify the plausibility of those notions that are theoretically argued for. This paper crucially relies on Prince (1981) for the notion of familiarity and its pragmatic significance, and adopts Rooth's (1985) notion of *alternative set* and utilizes it in the light of pragmatic interpretation. The basic idea of this paper is to decompose the notion alternative set into finer-grained components and to assign various levels of familiarity to those finer components, thereby helping define different kinds of focus and topic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those sub-components. (Kwangwoon University)

Key words: 확인초점(identification focus),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 대안집합(alternative set), 고갈성(exhaustivity), 배타성 함축(exclusiveness implicature)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초점 (focus)과 주제 (topic)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Prince (1981), Dryer (1996), 그리고 Gundel (1999)의 화용론적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Rooth (1985)의 기본 개념인 대안집합을 변용하여, 초점과 주제의 하위 개념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며 이런 이론적 주장이 음성학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제(topic)보다 초점(focus)에 대한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지만 주제에 대한 특성도 언급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초점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전제 (presupposition)과 신구성 (novelty, informational newness)이 초점의 정의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Rooth (1996)와 Dryer (1996)에도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139-1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ybkim@kw.ac.kr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2-042-A00203). 본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인쇄심을 가지고 논평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의 일부가 2003년 담화인지언어학회(2003. 12. 13, 한양대)에서 발표되었음을 밝혀 둔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상에서 ‘활성화’된 (activated) 열린 명제 (open proposition)의 존재와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친숙성’ (familiarity) 혹은 ‘현저성’ (saliency)를 갖는 ‘대안개체’ (alternatives)들의 존재, 배타성의 함축여부가 초점을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2. 선행 연구 및 관련 개념들

본 절에서는 초점과 관련하여 2.1에서는 Halliday (1967)의 정보의 신구성, 2.2에서는 Jackendoff (1972) 및 다른 저자들의 전제에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2.3에서는 Rooth (1985)의 대안집합 (alternative set)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2.4에서는 Prince (1981)의 친숙성과 Dryer (1996)의 활성화된 전제 (activated proposition)를 간단히 개관한다.

2.1 초점과 정보의 신구성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기능주의적 접근에서는 초점을 정의하는 데 있어 정보의 ‘재생가능성’(recoverability)과 ‘신구성’(novelty)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Halliday (1967)에 의하면 아래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초점은 새로운 (new) 것이고, 선행 발화로부터 예측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What is focal is new ... in the sense that the speaker presents it as not recoverable from the preceding discourse ... The focus of the message, it is suggested, is tha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peaker as being new, textually (and situationally) non-derivable information. (Halliday 1967: 204f)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많은 반론의 여지를 남긴다. 우선 신구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을 보자.

(1) A: It is [you]_F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B: Who came to the meeting, John, Mary, Bill, or someone else?

C: [Bill]_F came to the meeting.

(1)에서 A의 발화 속의 초점적 요소는 *you*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you*가 가리키는 개체는 대화상황에 주어진 것으로 가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대화자 상호간에 공유되어 있는 구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또한 C의 발화가 B의 발화에 대한 대답이라면 Bill이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 *Bill*도 이미 B가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구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측가능성 (혹은 재생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의 (2)와 (3)의 예문을 보자.

(2) A: Do you enjoy jogging?

B: Yes, (my wife and) I jog *every morning*.

B': #Every morning.

(3) A: How often do you jog?

B: I jog *every morning*.

B': Every morning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every morning'은 모두 예측가능하지 않지만 (2)에서는 초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3)에서만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초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Halliday는 신구성의 단위를 문장의 한 성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장단위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Akmajian (1973: 228)과 Lambrecht (1994: 211)는 초점성분이 예측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정보는 표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의 신구성의 최소단위는 명제 함수(propositional function)와의 결합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지 구성성분 하나만으로는 신구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4)의 대화 중 B의 발화에서 구성성분 'Bill'은 명제함수 [x writes poetry]의 변수 x를 치환하는 결합 관계 속에서 정보성이 있다는 것이다.

(4) A: Is it John who writes poetry?

B: No, it is Bill who writes poetry.

2.2 초점과 전제

Jackendoff (1972)는 초점을 전제 (presupposition)와 상보적인 것으로 보고 초점과 전제는 하나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we must suppose that one aspect of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a sentence is a division of the reading into presupposition and focus, and that this division is somehow reflected in the syntactic structure of a sentence. (Jackendoff 1972: 230)

Jackendoff (1972: 247)에 의하면 (4B)의 *It is Bill who writes poetry*는 (5)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5) [Bill] \in λx [x writes poetry]

Jackendoff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초점의 연구에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Jackendoff는 Bolinger (1965)의 제안을 따라 초점에는 전체 외에 일종의 특수한 피치 패턴¹이 나타난다고 제안하고 있고 이런 관찰은 초점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실험을 통해 한국어의 다양한 종류의 초점과 주제 표현들이 서로 상이한 음성적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Rooth (1996: 291-3)는 초점에서 존재전제²(existential presupposition)가 초점 구문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과 같은 대화에서 존재전제가 있는 지 살펴보자.

(6) A: Did anyone win the football pool this week?

B: I doubt it, because it's unlikely that [Mary]_F won it, and I know that nobody else did. (Rooth 1996: 292)

미식축구 시합의 점수 맞추기에 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Mary가 맞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점수를 못 맞춘 경우 B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여기서 Mary가 초점 강세를 받게 되는 데 전체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someone won the football pool]라는 존재전제가 B의 발화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³ 오히려 여기서는 [x won the football pool]이라는 진리치를 알 수 없는 ‘열린

¹ Jackendoff (1972)가 언급하고 있는 영어의 피치액센트는 A-액센트와 B-액센트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초점 어절에 높은 피치로 시작하여 다음 음절에서 급격하게 낮은 피치로 내려 간 후, A-액센트는 하강조로 끝나고 B-액센트는 상승조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A: Well, what about FRED? What did HE eat?

B: FRED ate the BEANS.

L+H*L H% H* L L%

(*: stressed syllable의 표시, %: boundary tone의 표시. +: paired tones)

위의 예에서 B의 발화 중 FRED는 B-액센트이고 BEANS는 A-액센트로 발음된 것이다

(Jackendoff (1972), Pierrehumbert (1980) 및 Wee (1999) 참조)

² 여기서 논의되는 ‘존재전제’는 한정명사구(예, *the king of France*)의 존재전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정명사구의 존재전제는 정관사의 의미에서 나오는 관용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 초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존재전제는 [John]_F is going to dinner with the speaker와 같은 초점이 있는 구문이나 분열문 (cleft sentence)에서 흔히 생겨나는 것으로 분석되는 보다 화용적 개념이다. Rooth는 위 문장에 [someone is going to dinner with the speaker] [밑줄은 저자의 표기임]와 같은 존재 전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보다 약한 [x is going to dinner with the speaker] 형태의 초점 의미값을 할당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³ 이 외에도 Rooth (1996)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 Did anyone win the football pool this week?

B: Mary_F won it. (Rooth 1996: 293)

의문사 의문문과는 달리 가부(Yes-No) 의문문에는 존재적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발화에 초점을 둘 수가 있어 위의 주장을 더욱 보강시켜 준다. 또한 Dryer (1996)도 다음과 같은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도 초점은 있지만 전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제' (open proposition)가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고 그 열린 명제를 만족시키는 대안개체들이 초점의 후보자로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다.

2.3 초점과 대안집합

Rooth (1985)는 그의 대안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에서 초점 의미값(focus semantic value)은 대안집합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7a)와 같은 문장은 담화영역 D가 {John, Bill, David, Nick}으로 한정된다면 (7b)와 같은 초점 의미값을 가진다.

- (7) a. John introduced [Bill]_F to Sue
 b. {[John introduced John to Sue], [John introduced Bill to Sue], [John introduced David to Sue], [John introduced Nick to Sue]}

그리고 Rooth(1996)에서는 초점이 Grice (1975)의 대화의 격률에 의한 대화상의 함축에 의해 일종의 부가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서 (8)를 보자.

- (8) Well, [I]_F passed. (Rooth 1996: 274)

(8)은,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세 명, 즉 갑과 을과 화자가 퀴즈를 보았는데 그 결과를 궁금해 하며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는 말이다. Rooth에 의하면 (8)과 같이 'I'에 B-액센트⁴를 주어 발음을 한다면 갑과 을은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Grice의 양의 격률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사람이 합격했다면 그 만큼의 정보를 주었을 터인데 실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함축적 답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Rooth의 이런 화용론적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이런 종류의 함축이 있다면, 이를 배타적 함축 (exclusiveness implicature)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초점의 중요한 화용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싶다.

2.4 담화 개체의 친숙도

초점과 관련하여 3절에서 이용될 또 하나의 개념 중의 하나가 담화개체의 친숙도 (familiarity)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것은 Prince (1981: 245)가 제안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 (9) (Textually, Situationally) Evoked > Unused > Inferrable > Containing Inferrable > Brand New (Anchored) > Brand New (unanchored)

-
- A: Who if anyone saw John?
 B: #It was MARY that saw John
 B': [MARY]_F saw John.

⁴ 한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8)에서 [I]_F는 B-accent로 발음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Prince의 이런 구분⁵은 문장 속에 쓰이는 표현이 지칭하는 개체가 화자에게 얼마나 친숙성이 있는지를 분류해 주고, 담화 상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 단순히 동질적인 불특정 개체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도의 친숙성을 갖는 이질적인 개체들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Dryer (1996)는 Prince (1981)의 개념을 원용하여 흔히 전제라고 통용되는 개념이 givenness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Givenness in the sense of shared knowledge

Givenness_k: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know', assumes, or can infer a particular thing (but is not necessarily thinking about it)

(Prince 1981: 230)

(11) Givenness in the sense of saliency

Givenness_s: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has or could appropriately have some particular thing / entity ... in his/her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hearing the utterance.

(Prince 1982: 228)

이 기준에 의하면 한정명사구 등에서 생기는 전제는 givenness_k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유된 지식의 일부로서 존재하지만 대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에 비해 (4B)에 나타나는 전제는 givenness_s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즉 활성화 되어 있을 때 (4B)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3. 초점과 주제

본 절에서는 초점의 논의에서 시작된 의미화용적 개념들이 초점의 개념적 정의를 정교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주제 (topic)의 하위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필자는 초점의 개념정의를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로 (12)에 열거된 요소들을 꼽는다.

⁵ Prince가 위의 (9)에 제시한 범주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a. I bought *a new dress* (Brand-new + attribute)
- b. *A rich guy I know* bought a Cadillac. (Brand-new Anchored + attribute)
- c. *Rotten Rizzo* can't have a third term (Unused+ attribute)
- d. I went to the post office and *the stupid clerk* couldn't find a stamp. (Inferable + attribute)
- e. Have you heard *the incredible claim that the devil speaks English backwards?* (containing inferable + attribute)
- f. Susie went to visit her grandmother and *the sweet lady* was making Peking Duck. (Evoked + attribute)
- g. *Lucky me* just stepped in something. (Situationally evoked + attribute)

(Prince 1981: 237)

(12) 초점의 의미화용적 분류 기준

- a. 활성화된 열린 명제 (activated open proposition)의 존재 여부
- b. 대안집합 (alternatives)의 크기와 특성
- c. 배타적 함축 (exclusiveness implicature)의 존재 여부

우선, (12a)의 ‘활성화된 열린 명제’는 Rooth (1996)가 말하는 초점의 의미값과 Dryer (1996)의 활성화된 전제라는 개념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활성화된 열린 명제’ (activated open proposition)의 생성 맥락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는 대안(alternatives)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13)에서처럼 선택의 문문 등이 [x is responsible for this] 같은 열린 명제를 활성화시키는 맥락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⁶

(13)A1: Who is responsible for this, you or me?

B1: [I]_F am.

A2: Should I talk to John or Bill?

B2: You should talk to [Bill]_F.

(13)과 같은 선택의 문문은 직접적으로 대안을 언급하며 그 중 하나를 고르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때 언급된 대안 개체들이 본 논문에서 말하는 대안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 때의 대안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안 집합의 크기는 매우 작다. 따라서 대답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Grice의 대화의 격률, 특히 양의 격률에 의해 배타적인, 즉 부정적인 함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하기 위하여 (7a)를 (14)에 반복 제시하여 설명한다.

(14) a. John introduced [Bill]_F to Sue

b. Who did John introduce to Sue?

(14a)는 (14b)등과 같은 의문문에 대한 답으로서 적절하며 (14b)는 [John introduced x to Sue]는 열린 명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열린 명제의 존재가 (14a)라는 초점구문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담화영역이 {John, Bill, David, Nick} 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대안집합은 그 담화영역과 같아지고, Bill 외에 John, David, Nick은 Sue에게 소개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한다.

필자가 말하는 대안집합은 양인석님 (1973)이 상정하는 자매항들의 집합과 같은 것이고 (7b)와 같은 Rooth (1985)의 명제의 집합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의 이러한 선택은 담화영역에 속하는 개체들이 Prince (1981)의 제안대로 서로 다른 친숙성 가진다는 것을 초점의 개념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이를 위해 본

⁶ 여기서 [I]와 [Bill]은 A-accent로 발음한 경우라고 간주한다.

논문에서 Rooth의 대안집합의 각 원소, 즉 명제들을 열린 명제 (즉 명제 함수)와 ‘초점 후보자’ (논항표현)으로 구분시킨 것이다. 이는 3.1에서 설명할 Kiss (1998)의 초점의 하위 분류 및 그 이후에 논의될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안 집합이 어떠한 친숙성 혹은 현저성을 가진 개체들이냐에 따라, 그리고 대안 집합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초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3.1 확인초점과 정보초점

Kiss (1998)는 확인초점(identification focus)과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을 구분하고 있다. Kiss에 의하면 확인초점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되는 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확인초점이란 맥락상으로 주어진 개체들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Kiss에 의하면 확인초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An identificational focus represents a subset of the set of contextually or situationally given elements for which the predicate phrase can potentially hold. (Kiss 1998: 245)

따라서 확인초점의 대안들은 지문맥락이나 상황 속에 주어진 개체들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예 (13)). 따라서 대안집합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⁷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갈성⁸과 작용역 (scope)의 존재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갈성은 Szabolci (1981)의 검증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추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⁹

(15) A & B +++> A OR B (Conjunction Reduction)

(16) a. It was Tom and Mary that came

b. It was Tom that came

c. It was Mary that came

흔히, 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을 논항으로 요구하는 술어(예 ‘모이다’)가 아니면 일차 술어 논리표현인 $P(a \oplus b)$ 는 $P(a) \& P(b)$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15)에 의해 $P(a)$ 도 참이고 $P(b)$ 도 참이 되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 언어표현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16)에 보인 것과 같은 확인초점 구문이다. (16)에서 (16a)가 적절한 (feasible) 발화라고 해서 (16b)나 (16c)가 적절한

⁷ ‘대안집합의 크기가 작다’는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화상에서 언급된 개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소수일 것이다. 단기기억 (short term memory)을 할 수 있으나 없느냐가 심리학적이거나 인지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도 이와 관련된 숫자를 소수와 다수의 구분에 적용하고자 한다.

⁸ Kiss는 ‘exhaustiv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흔히 사용되는 ‘배타성’이라는 번역보다 ‘고갈성’이라는 번역을 택했다. 나중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만 ‘배타성’ (exclusiveness)은 ‘고갈성’과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⁹ ‘+++>’는 ‘entails’ 관계를 나타내기로 약속한다.

발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고갈성이라 부르고, 이를 확인초점 구문의 특성 중의 하나라고 Kiss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Tom’과 ‘Mary’는 지문문맥이나 (직시적) 상황맥락에 주어진 요소의 집합의 부분집합을 이룬다. 이를 종합하면 확인 초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17) 확인초점

- a. 대안집합의 원소들은 화맥에 언급된 활성화된 개체들이다.
- b. 대안집합의 크기는 작다.
- c. 강한 배타성 함축을 지닌다.

확인초점의 전형적인 예로 (18)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대안들이 담화 상에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대안의 크기가 작으며 잘 정의되어 있다. 또한 배타성의 함축이 강하다. 따라서 이런 강한 함축을 고갈성 (exhaustiv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8)의 예에서 ‘모두’ 같은 양화사도 의문문에서는 부분집합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18) A: 철수, 명수, 영희가 모두 갔어? (실제로 철수와 명수가 가버린 상황에서)

B: 철수가 갔어.

C: 아냐, 철수하고 명수가(LuH) 갔어.¹⁰

(18)의 경우는 그 대안집합이 주어진 개체 집합의 멱집합(power set)으로 간주될 수 있고, 언급된 개체의 여집합이 부정적으로 함축된다. 예를 들어 (18)의 경우는 그 대안집합이 $\{\emptyset, \{\text{철수}\}, \{\text{명수}\}, \{\text{영희}\}, \{\text{철수+영희}\}, \{\text{철수+명수}\}, \{\text{명수+영희}\}, \{\text{철수+명수+영희}\}\}$ 이 되어 ‘철수가 갔다’고 하는 경우 모든 다른 대안이 부정적으로 강하게 함축될 수 있어 (18C)가 가능하다. 즉 확인 초점에서는, (18C)에서 처럼, (18B)의 함축이 “아냐” 등의 표현으로 부정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19B)처럼 정보초점 구문인 경우는 강한 배타적 함축이 나타나지 않는다.

¹⁰ 여기서 한국어에 관련된 성조(tone) 표기법에 대하여 간단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Jun (2000)의 관찰대로 우리나라 말의 문장 처음 시작은 LH (L: low tone, H: high tone)의 유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의 4.3.1의 [표-2]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식의 화용적 의미가 가미되어도 이런 상대적 성조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문을 위해 실시한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다만 H 성조의 높이가 각각의 화용적 의미에 따라 확연히 구별되는 것도 사실이다. [표-2]에서 나타난 단정표현(thetic expression)과 주제(topic)등은 비록 둘째와 셋째 음절이 첫째음절보다 높아 일반적인 음성학적 관행을 따라 LH의 표기한다. 그러나 같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초점과 확인초점 등은 특별히 높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H대신 uH (ultra-High)로 표기하였다. 또한 L성조의 경우에도 초점의 첫 음절은 비초점보다 항상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달리 표기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단순히 L로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LuH로 표시된 성조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첫 어절부터 약간 높게 발음되는 것이 예측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H 다음의 ‘a’는 강세구 (accentual phrase)의 끝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19) A: 동창회에 누가 누가 왔었어? (실제로 철수하고 명수가 온 상황에서)

B: 철수가 왔었어.

C: ??아냐, 철수하고 명수가 왔었어.

(19)에서는 대안집합이 ‘동창회’의 의미에 바탕을 두고 ‘동창회’의 외연(denotation)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 상정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19B)와 같은 발화는 발화자가 알고 있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나타낼 뿐이지 (18)에서와 같은 추가적인 함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초점과는 달리, 확인초점은 작용역 중의성(scopal ambiguity)을 갖는다. (20)의 예를 보자. (20)은 여론조사 팀이 일정한 수의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여러 조사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접촉하며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말이다.

(20) A: 만두, 영수, 민수가 인터뷰 갔었지?

그래,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

B: 만두가(LuH) 모든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20A)가 팀장의 물음이고 (20B)는 사무실에서 조사결과를 수합하는 사무원의 대답이다. (20B)는 ‘만두가’를 높은 톤으로 읽으며 (다른 조사원의 무능함을 원망하듯) 만두 혼자서 대상자를 다 만나 보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만두]가 확인초점으로서 [모든 사람]보다 작용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¹¹ 이

¹¹ 이를 초점 운용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i) $[\forall x: \text{human}'(x)] [\text{Excl } y: y=m] \text{contact}'(x, y)$

(ii) $[\text{Excl } y: y=m] [\forall x: \text{human}'(x)] \text{contact}'(x, y)$

(i)은 다른 사람도 몇몇 고객을 접촉했지만 모든 고객을 접촉한 것은 만두뿐이라는 해석이고 (ii)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촉을 못하고 만두가 모든 사람을 접촉했다는 해석을 나타낸다. 양화사 ‘Excl’은 Keenan, E. L. and J. Stavi (1986)과 Keenan (1996)의 해석 방식을 원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Definition 1: ‘Excl A B’ s true iff $\forall x [x \in A \leftrightarrow x \in B]$

한 익명의 심사자가 (20) 같은 문장이 두 가지 해석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보면 두 가지 (회용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황 1)

(다양한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A: 너희들 중 모든 음식을 만든 사람 있어?

B: 예, 민호가/만 모든 음식을 만들었어요.

(상황 2)

(푸짐하게 많이 만든 음식을 칭찬하면서)

A: 너희들이 음식을 다 만들었어?

B: 아뇨, 민호가 모든 음식을 만들었어요.

상황 1에서는 다른 사람도 몇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보았겠지만 민호만이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만든 경우라고 사료되고, 상황2에서는 다른 사람은 손을 놓고 있고 민호가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

를 (21)와 비교해 보자

(21) A: 영업 사원들의 실적이 어때요? 기준 실적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B: 김만두씨가 (LH)¹² 모든 차종에서 기준실적을 올렸네요.
이영수씨도 (LH) 그렇고요.

(21B)는 사무원이 개개인의 실적이 수합된 결과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각각의 개인 실적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0)에서와 같은 작용역 중의성이 사라진다. 즉 (23B)에서는 [모든 차종]이 항상 넓은 작용역을 갖고 [김만두]는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 이는 일반적 문장의 특징이며 정보초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초점의 특징은 (22)처럼 요약할 수 있다.

(22) 정보초점:

- a. 대안집합은 비생소한 (non-brand-new) 대상이다.
- b. 대안집합의 크기가 크고 배경지식이나 어휘의미에 의해 불특정 다수로 정의됨.
- c. 배타성의 함축이 약하다.

정보초점의 특징은 대안이 지문맥락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19)에서처럼 [동창회]나 (23)에서처럼 [our school]과 같은 어휘의 외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대안이 청자나 화자의 어휘지식 혹은 배경지식에 따라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A: Do you know who will represent our school?

B: Yes. John has been elected as (one of) our representative(s).

즉, (23)에서 대안집합은 전교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공유된 지식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자들이 문제의 대표를 뽑는 관행을 잘 아는 경우라면, 즉 공유된 지식이 보다 구체적이라면, 그 대안집합은 좁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담임교사가 반장이나 부반장 중에서 추천을 하고 이들 중에서 몇 명을 학교장이 임명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아는 경우라면 그 범위가 좁혀진다.

3.2 주제-해설 (Topic-Comment) 구문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초점과 관련하여 논의된 화용적 기준들이 한국어의 한정사 ‘-은/-는’의 용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은/-는’의 가장 대표적인 화용적 의미로는 주제(topic) 표지로 알려져 있어 초점과는 화용적

있다는 뜻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심사자의 지적대로 ‘의미론적인’ 작용역의 구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¹² 주석 10)에 언급되어 있듯이 LH 성조는 자연스럽게 평상적인 성조를 가리킨다.

으로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처럼 주제를 초점과 같은 기준 하에서 분류하려 시도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Gundel (1999: 29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2.1에서는 Gundel의 심리적 초점(psychological focus)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3.2.2에서는 화용적 추론과 관련하여 주제와 초점의 차이에 대해 살핀다.

3.2.1 주제의 현저성. Gundel (1999)은 주제처럼 현저성이 큰 표현들을 심리적 초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24)에서 *she*는 심리적 초점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언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쓴다면 주제(topic)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a. Emily hasn't changed much. *She* still looks like her mother, doesn't *she*?
- b. (Speaker sees addressee looking at a picture of a woman and says:) *She* looks just like her mother, doesn't *she*?

주제는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으로 Prince(1981)의 기준으로 보면 (24a)의 *she*는 지문맥락에서 환기되어 (evoked) 있고 (24b)의 *she*는 상황맥락에서 환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Dryer (1996)나 Gundel et al. (1993)의 기준에 의하면 주제 표현에 의해 지칭되는 개체는 '활성화'된 개체 혹은 그 이상의 현저성을 가지는 개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제는 높은 현저성을 갖는 담화개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2 주제표지와 화용적 추론. Halliday (1967: 240)의 관찰에 의하면 초점이 있는 구문은 일종의 강조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조구문이란 Fauconnier (1976)이나 Kadmaon and Landman (1993)에 나타난 것처럼 일련의 추론¹³을 수반한다. 즉

¹³ 필자는 강조의미를 주는 추론은 화용적 추론이 수반되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다음 한 쌍의 문장을 보자. (a)와 (b) 모두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경우로 보자.

(a) John didn't budge an inch.

(b) John stood still.

엄밀하게 의미를 따진다면 (a)는 반 인치 정도 움직여도 참이라고 할 수 있고 (b)는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야 참이 되어, 어쩌면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기준에서 보면 (b)가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언중들은 (a)가 더 강한 구문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 이유는 (a)와 (b) 모두가 강한 진술이어서 [존이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이지 않았다], [존이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존이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존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지 않았다]... 등 많은 관련성 있는 명제를 함의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함의 존재도 강조구문의 하나의 요건임), (b)는 화용적 함축이 일어나지 않고 a는 등급적 함축 (scalar implicature) 같은 화용적 함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강조구문으로 볼 수 있다. 화용적 함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수의 명제를 (화자가 의식적으로)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위해서는 Kadmon and Landmann (1993)의 제안대로 widening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 즉 요리하려 할 때 [감자]는 평범한 감자만을 우리의 염두에 두게 하지만 [어떤 감자라도]라는 표현에서는 심지어 관상용으로 화병위에 있는 감자까지 domain을 넓

하나의 발화에서 여러 개의 명제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를 보자.

(25) A: Who came to the meeting, Bill, Mary, or John?

B: Well, believe or not, it was John who finally showed up.

B': Well, [John]_F came.

(25)에서 B의 발화는 존이 왔다는 내용을 전달할 뿐 아니라, 빌이 오지 않았고, 메리도 오지 않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므로 B의 발화는 진술의 강도가 큰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5B')를 B-accent로 발화했을 경우에는 그런 추론이 불가능하다. 우선은 (25B')은 한국어로 옮길 때, '-은/-는'표지가 붙는 것이 유의하자.

이와 아울러 주제표지로서 '-은/-는'이 나타나는 (26)에서는 오로지 [단학]이라는 개념의 소개에 목적을 두고 단학 외에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채로 지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26)에서도 (25B)에서와 같은 추론을 하기 어렵다.

(26) 단학의 정의

단학은 인간이 기를 활용하여 스스로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한민족 고유의 학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단학은 체내의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치 [를, ...] 깨달아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인간 완성학이다. 단학은 홍익 인간 ... (이하중략) (이승현 1985: 17)

왜 (25B)에서는 '강조적' 의미를 주는 추론이 가능하고, (25B')이나 (26)에서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대안' (alternatives)의 존재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25B)에서는 '존' 외에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안들이 A의 발화의 일부로서 발화 상에 명료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에서 B의 발화는 초점구문이고 '존'이 초점이 되고, 따라서 일련의 추론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25B')과 (26)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26)에서는 단학 외에 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단학이라는 개념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의 성격을 띤다. 대답되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도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배타적인 함축도 없다.

그러나 (25B')에서는 대안이 존재하고, 열린 명제도 있어 보이나 (25B)에서와 같은 추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한국어에서 '-은/-는'이나 영어에

해야 하듯이, (a)에서는 [움직임]을 매우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많은 종류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추론되는 명제의 수가 많아진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문장은 의미론적으로 강한 문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휘-의미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 그것이 인간의 인지과정에서 (a와 같은 활발한) 추론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초점구문에서는 배타적 함축이 일종의 화용적 추론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초점구문이 '강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Y.-B. Kim (2001) 참조 바람.

서 B-accent는 주어진 대안을 무시하려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화용적으로는 결국 어떤 열린 명제 (혹은 명제함수)가 단일한 개체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7)의 예를 보자. (큰 대문자는 A-accent, 작은 대문자는 B-accent를 나타낸다)

- (27) a. The largest demonstration took place in PRAGUE in November in 1989.
 b. The largest demonstration took place in Prague in NOVEMBER in 1989.
 c. The largest demonstration took place in PRAGUE in November in 1989. Gundel (1999: 301-302)

Gundel에 의하면 만약 전국적으로 보아 11월에 가장 큰 데모가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났었다면 (27a)는 거짓이고 (27b)와 (27c)는 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B-accent를 받는 (27c)는 다른 대비되는 도시와 상관없이 그 도시에만 국한하여 명제의 나머지 부분이 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5B')에서도 다른 개체들과 상관없이 [John]로 지칭되는 사람이 온 것이 참일 경우에, 행할 수 있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¹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6)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주제(topic)는 초점과 매우 다른 개념처럼 보이고, 초점에 적용했던 기준을 원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8) 주제의 화용적 특성

- 1) 활성화된 열린 명제의 부재 (no activated open proposition)
- 2) 대안집합의 원소는 한 개의 개체나 그룹이며 활성화 되어있다.
- 3) 배타성의 함축이 없다.

3.3 대조주제 (contrastive topic)와 대조초점 (contrastive focus)

한국어의 조사 중에서 '-은/-는' 이 붙는 경우 '(담화)주제'(topic)가 되기도 하고 (박승윤 (1986), 최규수 (1999) 참조) 혹은 대조주제 (contrastive topic)가 되는 경우도 있다 (Kuno (1972), I.-S. Yang (1973) 참조). 또한 Gundel (1999)은 우리말의 '-은/-는'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우선 담화상의 주제(topic)에 대해서는 언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다룬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는'이 문

¹⁴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B')에서는 활성화된 명제가 있고 대안이 존재하게 때문에 일종의 추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5B')는 이를 무시하려는 상황으로 보이고, (26)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없는 것처럼 보여, 똑같이 '-은/-는'이 사용되었지만, 이 두 용법은 화용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차이가 3.3에서 대조초점을 상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장 가운데 출현하였을 경우에는 위에 거론된 문헌에서처럼 ‘대조주제’ 또는 ‘대조초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두 개념의 구별이 쉽지 않지만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적 구별을 시도하고 이를 음성적 자료와 문법성 차이를 통해 그 차이를 보이고자 한다.

3.3.1 대조주제. 대조주제는 주제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에 주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되 대안의 수가 둘 이상이고, 또한 각 대안에 대해 서로 다른 서술 (해설)이 행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9)을 보자.

(29) A: 애들은 뭘 먹었지?

B: 영수는 라면을 먹고 영희는 만두를 먹었어요.

대조주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담화 상에 주어진 개체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3.3에서 다른 주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9)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이]가 나타내는 담화상의 개체들은 {영수, 영희}이어야 할 것이다. 즉 대조주제에서 대안은 선행 발화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개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해설 (comment)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30)처럼 두 종류의 대안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30) 1) 대조주제의 대안 집합 $A_{thm} = \{ a_1, a_2, \dots a_n \}$
(논항표현) - 제한적

2) 해설부의 대안집합 $A_{com} = \{ P_1, P_2, \dots P_n \}$
(술어표현) - 비제한적

여기서 대조주제의 대안 집합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친한 친구 몇 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대조되는 개체들은 비교적 제한적인데 비해 이 개체들에 대한 해설은 비교적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두 집합이 데카르트 곱집합 (Cartesian product)을 이루며 두 개 이상의 명제가 표현되거나 결합될 때 대조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조주제는 지문 상으로 활성화 개체 (evoked or activated)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31)과 같은 경우에 [만수]와 [민희]는 Prince에 의하면 미사용 신 개체 (unused new)에 속한다.¹⁵

(31) A: 요즘 대학 동창들 만나 봤나?

B: 만수는 미국에 가서 못 본지 오래고 민희나 영희는 가끔 만나지.
그리고 만수는 지난 봄에 만났어. 어쨌든 전부는 만나기 힘들 걸.

¹⁵ 이에 비해 (32)과 (33)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조초점의 경우는 미사용 신 개체를 사용할 수 없다.

어쨌든 대조주제가 되는 것은 대안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문맥상에 미리 언급되지 않아도 되고 대화상황에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조주제는 담화 주제처럼 화자가 언급된 대안에게 동등한 관심을 갖고 언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조주제는 사용된 표현들이 하의관계(hyponymy)나 부분관계(meronymy) 등, 개념적으로 일종의 하위구성성분이나 구성요소 등이 쉽게 상정될 수 있을 경우에 쉽게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동물’과 ‘식물’로 나뉠 수 있고, ‘동창회’하면 그 ‘구성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에 비해 (26)에서 언급한 ‘단학’은 대조주제를 찾기 어렵다. 물론 단학의 경우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그 하위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학을 소개하는 맥락에서 상정된 단학은 그 하위 개념이 독자들에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의 ‘어휘지식’이나 ‘배경지식’ 일부도 아니다.

3.3.2 대조초점. 대조주제와 흔히 구별되지 않고 쓰이거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으로 대조초점이 있다. 우리말에서 문장 중에 ‘은/는’이 두 개 이상 붙을 경우 대조주제라고 한다. 그러나 대조초점이라는 개념을 상정해야 할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 것 같다. 우선 (32)에서 나타난 것처럼 존재하는 대안에 대해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조초점을 별도로 설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억양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32) A: 영수랑 만수랑 다 갔어? (회의 도중 잠시 휴식을 하는 도중에)

B: (만수는 잘 모르겠고) 영수는 (LuHa) (집에) 갔어.

한 개체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피치로 표현하고, 다른 개체에 대해서는 청자가 추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이렇게 다른 개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개체의 체면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에 대해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25B')과 (26)과 관련하여 지적했던 것처럼 타 개체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지의 함축이 뒤따른다. 따라서 비교적 진술의 강도가 강하다. 이는 주제나 대조주제가 포괄적인 표현 속성을 가지는 데 비해 대조초점은 언급된 개체 이외에 타 개체의 존재를 상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상이점은 언급된 개체들의 신규성의 차이이다. (32B)는 활성화된 개체 중에서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31)에서나 (33B')처럼 대조주제는 활성화된 개체일 필요가 없다. 만약 (33B)를 (32B)처럼 초점성조를 주어 응답하면 매우 이상한 답이 된다.

(33) A: 요즘 대학 동창들 만나 봤냐?

B: #영수는 (LuH) 미국에 가서 못 본지 오래야.

B': 영수는 (LH) 미국 가서 못 본지 오래지만 나머지는 자주 보는 편이야.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해보자. 약 7 - 8명의 친구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갑돌이라는 사람이 회장 격이어서 갑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돌아오며 영수하고 만두 안 보이자 다음과 같이 묻는다. 단 영수와 만두는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모두들 그들이 당연히 남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대답하는 사람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화가 가능하다.

(34) 갑돌: 영수랑 만두랑 다 떠 났어

영수: (영수는 안 가고 만두는 집에 간 것을 알고 원망하는 어조로) 만두가 (LuH) 갔어.

(35) 갑돌: 영수랑 만두랑 다 떠 났어

병수: (영수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고 다만 만두가 간 것은 확신하고) 만두는 (LuH)갔어.

(36) 갑돌: 영수랑 만두랑 다 떠 났어?

정수: (영수와 만두의 소재를 다 알고 있으면서 각각에 대해 설명하는 어조로) 만두는 (LH) 일이 있어 갔고 영수는 화장실에 갔을 걸.

(34)에서 영수가 발음한 ‘만두가’는 3.1에서 언급한 확인초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영수가 떠나지 않았다]는 함축을 지니다. 이에 비해 (35)의 병수의 발화 ‘만두는 갔어’는 (34)에서와 같은 함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두’를 높은 어조로 그리고 강하게 발음함으로써 일종의 초점과 유사한 어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제와 달리 (35)은 대안이 있는 것이 선행 문장에서 확인 될 수 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 행선지를 모르겠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내비치고 있다.¹⁶ 따라서 (38)의 병수의 발화는 담화상의 주제와 다르고 오히려 (37)와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초점 발화라고 할 수 있다.

¹⁶ 한 익명의 심사자는 이런 해석에 대하여 다음 (38')와 같은 예문이 결국 (38)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38')는 지금까지의 논리를 따르면 대조주제의 구문에 속한다고 보여 진다.

((38')) 갑돌: 영수랑 만두랑 다 떠 났어

병수: (영수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고 다만 만두가 간 것은 확신하고) 만두는 (LuH)갔고 영수는 모르겠어.

우선 음성학적으로 LuH의 패턴이 나오지 않고 대조주제의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미 본 논문을 위한 실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만두와 영수 두 사람이 모두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만두는’이 높은 피치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38)의 ‘만두는’은 (38')의 ‘만두는’보다 함축적인 말이고 따라서 정보의 양이 많으며, 그에 비례하여 음성학적으로도 강하게 실현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37) a. 영수가 떠났는지 여부는 모른다.

b. 영수와 만두가 다 떠났는지 여부는 모른다.

4절에서 밝혀지겠지만 (38)의 병수의 발화 중 ‘만두는’은 (34)의 을수의 발화 ‘만두가’와 같은 형태의 음성적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35)의 병수의 발화 중 ‘만두는’은 대조초점이라고 부르겠다.

이에 비해서 (36)의 정수의 발화 중 ‘만두는’은 음성학적 형태에서도 (35)의 ‘만두는’과 차이를 보일 뿐더러 담화 상으로도 화자의 심적 상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두’를 높지 않은 어조로 말할 때는 ‘만두’에 대한 설명(comment)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만두가 간 이유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수가 있다. 또한 대조되는 개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수준의 설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6)에 있는 ‘만두’나 ‘영수’는 일종의 대조주제인 것이다.

또한 (38)에 보인 것처럼 (36)의 표현을 (35)의 초점 억양으로 발음하면 매우 어색한 발화가 된다.

(38) 갑: 영수랑 만두랑 다 떠났어?

을: #만두는 (LuH) 일이 있어 집에 갔고 영수는 (LuH) 화장실에 갔을 걸.

또한 (35)에서는 [x left]라는 열린 명제가 발화자들 사이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데 비해 (36)에서는 [x left]와 [y stayed]의 문제로 전환이 일어나서 대화의 초점이 분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조초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요약해 볼 수 있다.

(39) 대조초점

- 1) 활성화된 열린 명제의 존재
- 2) 대안 집합의 크기가 작고 지문에 주어진 개체임
- 3) 무관심 혹은 무지의 함축이 존재함

4. 음성학적 관찰

3절에 제안된 내용들이 Jackendoff (1972), Pierrehumbert (1980)와 Beckman, M. E. and J. B. Pierrehumbert (1986) 등의 주장대로 음성학적 성조유형과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하였다.

4.1 실험의 목적

실험의 가장 큰 목적은 초점과 비초점 명사구 사이에 신뢰할 만한 음성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종 하위 개념들이 음성학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도 관심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려고 하였다.

- (1) 초점 구절은 비초점 구절보다 높은 성조를 보일 것이다.
- (2) 초점 구절은 비초점 구절보다 길게 소리 날 것이다.
- (3) 명사보다 조사에 해당 구절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날 것이다.

위의 (1)과 (2)의 가설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정보량이 많을수록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피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들 가설을 세웠고, (3)의 가설은 국어가 조사에 의존하여 통사/의미적 혹은 화용적 의미를 표현하므로 그러한 의존성이 음성학적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4.2 실험 내용 및 절차

4.2.1 실험 자료.

실험 자료¹⁷로 사용된 문장은 필자가 상황을 설정하여 만들어낸 대화체 자료로서 실험수행자가 피실험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녹음실 내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녹음하였다.

상황1: (만두집에서 만두를 시켜 놓고 친구끼리 하는 말)

녹음수행자: 넌 왜 맨 날 이 만두집에 오냐?

피실험자: 이 집에서 만두가 나올 때 양념장이 끝내 주거든.

상황2 (요리교실 같은 곳에서 수강생에게 요리 강사가 설명 하는 톤으로)

녹음수행자: 만두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피실험자: 만두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 하자면, 만두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만두는 그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는데, (중략).....

상황3: 소규모 모임을 갖던 중 잠깐 휴식하는 사이에 밖에 나갔던 A (회장격)가 회의장에 다시 돌아와 영수하고 만두(별명)가 없는 걸 보고 A가 질문한다.

A (실험수행자) : 영수랑 만두랑 모두 떠났어? (만두가 간 상황에서)

피실험자: (떠나도 상관없는 영수는 안 가고, 핵심 인물인) 만두가 갔어 (원망스런 어조로)

¹⁷ 녹음을 하기전에 실험 조교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피실험 학생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 받으면서 대화체로 녹음하라고 하였다. 실제로 실험 조교들의 후일담을 들어 본 결과, 녹음시 피실험자가 녹음 대본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피실험자 나름대로의 상황이해를 바탕으로 녹음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 대본의 괄호 속에 들어간 내용이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음성적) 사실을 왜곡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 심사자의 지적대로 문장 패턴에서의 변인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상황 4: (상황 3과 같은 상황에서)

A (녹음진행자) : 영수랑 만두랑 모두 떠났어?

피실험자: (영수는 원래 적극적이지 않으니 내가 알 바 없고, 핵심인물인 만두가 있어야 하는 데 좌우지간) 만두는 갔어 (가능하면 영수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이 없다는 듯한 어조로)

상황 5: (상황 3과 같은 상황에서)

A (녹음진행자) : 영수랑 만두랑이 안 보이네?

피실험자: (만두와 영수의 각각에 대한 정황을 알고 각각의 소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는 어조로) 만두는 집에 갔고 영수는 화장실에 갔어. 만두가 집안 일이 좀 급한가봐

상황 6 (입후보자 없이 학교 교장의 지명으로 학교 대표 약간 명을 뽑은 경우 그 결과를 몰라서 묻는 말에 대답한다)

A (녹음진행자): 누가 누가 학교대표로 뽑혔는지 아니?

피실험자: (대표로) 만두가 갔대. (만두는 친구 중의 하나임)

3절에서 부분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상황1은 화용적 의미가 없는 ‘-가’의 예이고, 상황2는 담회주제 (topic)을 포함하는 예이고, 상황3은 확인초점 (identificational focus), 상황4는 대조초점 (contrastive focus), 상황5는 대조주제 (contrastive topic), 상황6은 정보초점 (informational focus)을 보이기 위한 예들이다.

4.2.2 피실험자. 위의 자료를 녹음하기 위하여 서울과 서울근교 출신 20대 남녀 학생 23명을 선발하여 녹음하였다.¹⁸

4.2.3 녹음. 녹음은 녹음진행자가 선행질문을 한 후 피실험자가 대답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피실험자에게 주어졌고, 녹음 장소는 방음벽이 설치된 밀폐 공간을 사용하였다. 마이크는 HITEC사의 CM-400을 사용하였고 Micorsoft사의 Windows 98에 설치 되어있는 녹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3 실험결과 분석

4.3.1 피치 분석. 음성파일을 분석하는 데 Praat (버전 4.1)을 사용하여 음의 높낮이 (Pitch)와 길이를 측정하였다. 문제의 주제어와 초점어구에 대하여 음절마다 피치를

¹⁸ 본 연구를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별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남녀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일종의 예비 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두 번째 실험은 별도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여 남녀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확인 실험을 하였다. 두 번에 걸친 실험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였고, 여기 나타난 통계는, 주피수의 경우는 두 번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고 음절 길이의 경우는 첫 번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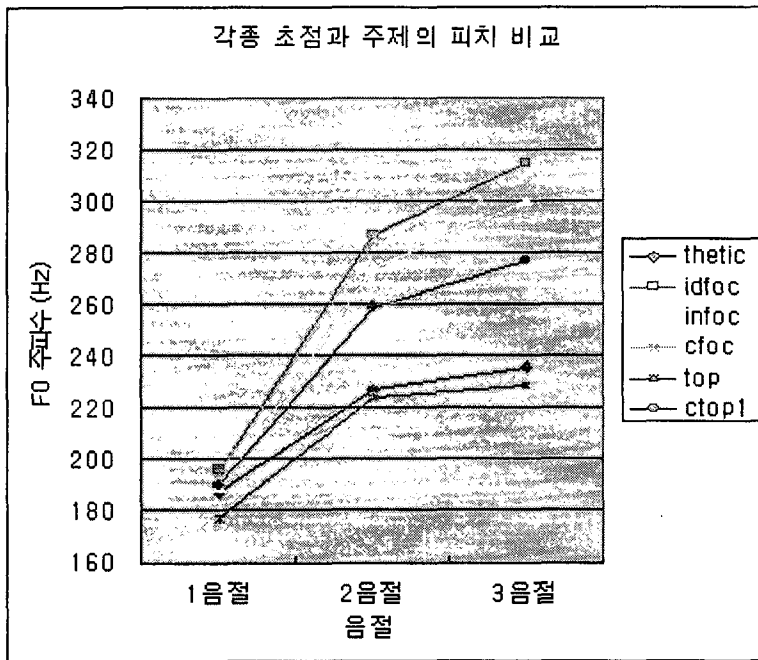
측정하였다. 피치가 한 음절 내에서 변화를 보일 경우는 강도 (intensity)를 기준점으로 삼아 가장 강도가 높은 지점에서 피치를 측정하였고 스펙트로그래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모음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지점의 피치 값을 대표 값으로 삼았다.

이렇게 수집된 각 어절별 평균값을 보면 [표-1]과 같다.¹⁹

구분	제1음절	제2음절	제3음절
단정표현 (thetic)-비초점	187	227	236
확인초점 (idfoc)	196	287	315
정보초점 (infoc)	189	274	300
대조초점 (cfoc)	195	284	307
주제 (top)	177	224	229
대조주제 (ctop)	190	259	277

[표 1]

이들의 차이를 보다 쉽게 비교하기 위해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표-2]와 같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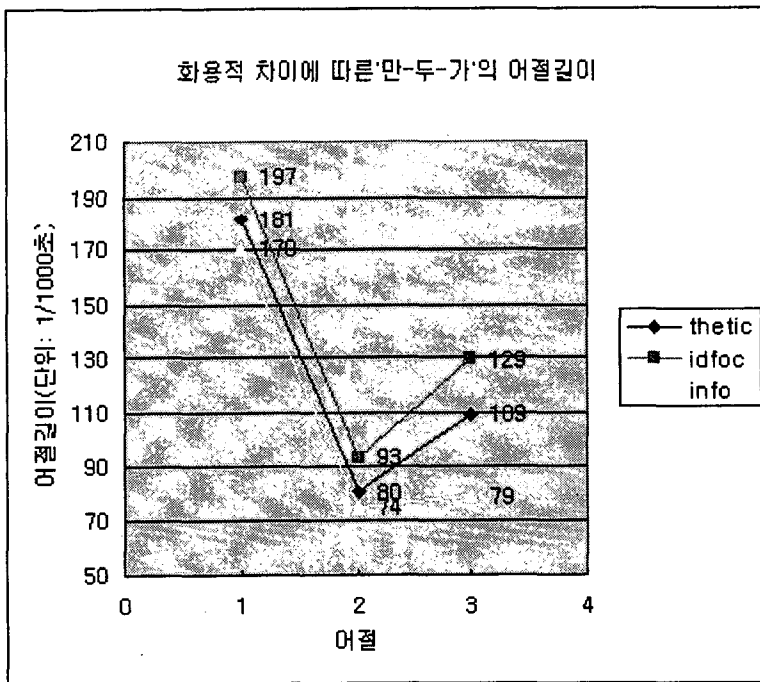
[표-2]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초점이라고 불리는 각종 표현들이 높

¹⁹ [표-1]과 [표-2]에서 thetic은 단정표현, top은 담화주제, idfoc은 확인초점, cfoc은 대조초점, ctop은 대조주제, infoc는 정보초점을 나타낸다.

은 주파수 분포를 보이는 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어절의 조사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정보량이 많다고 추정되는 확인초점, 정보초점 그리고 대조초점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장 높은 피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음성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대조주제 (contrastive topic)는 초점과는 다른 피치 수준을 보이고 있고 담화상의 주제보다는 높은 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개의 대조되는 개체가 있어 다소간의 돌출됨 (prominence)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용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정문 (thetic sentence)의 주어와 담화상의 주제(topic)가 비슷한 수준의 피치를 보였다.²⁰

4.3.2 어절 길이 분석. 피치를 분석했던 음절들에 대하여 길이도 측정하였다. ‘만두가/는’에서 모음과 비음을 모두 길이에 포함시켜 측정하였고 ‘ㄷ’과 ‘ㄱ’이 포함된 ‘두’와 ‘가’의 경우는 모음의 길이만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3]과 [표-4]에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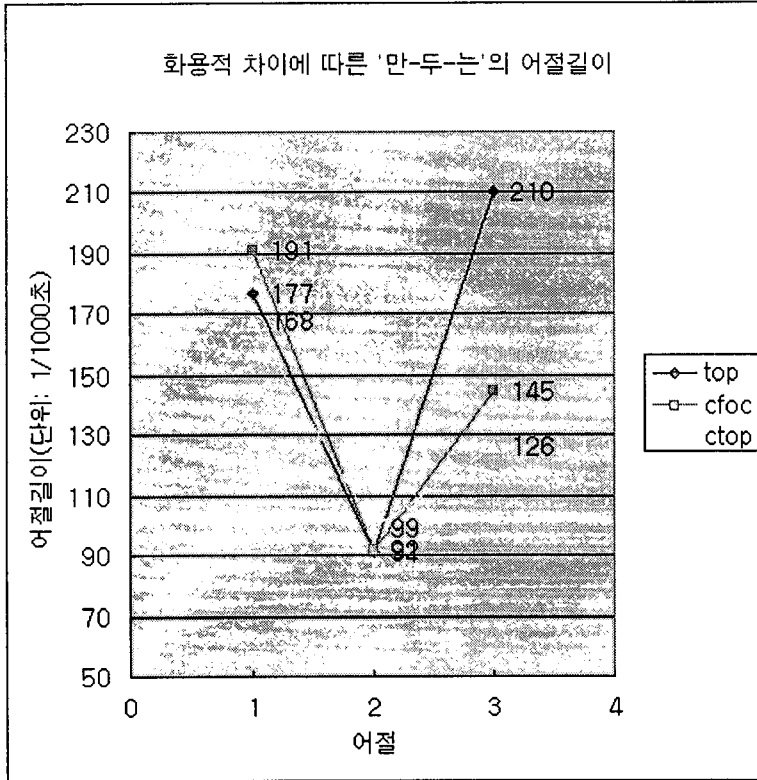


[표 3]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 초점의 ‘가’가 가장 길게 발음되었고 정보초점의 ‘가’가 가장 짧게 발음되었다.

²⁰ 위 도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특이한 사항 중의 하나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이 높은 피치를 보였다. (4.2.1의 실험자료 상황 2 참조)

[표-4]에는 ‘만두는’의 발음의 길이가 음절별로 측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사자체보다 조사에서 길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제(topic)의 ‘는’이 가장 길었고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의 경우 가장 짧았다



[표 4]

4.4 신뢰도 및 통계해석

여기서 확인되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 차이가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의심이 가는 쌍들에 대하여 SPSS (버전 9.1)를 사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제 3음절이 가장 특징적인 음높이를 보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계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통계치를 얻었다.²¹ [표-5]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확인초점과 정보초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심 쌍들의 피치 차이가 통상적인 유의수준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표본들의 통계결과가 모집단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확인초점과 정보초점 간의 피치 차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것들끼리의 피치 차이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차이 라고 할 수 있다.

²¹ 표-3에서 thet3, top3 등은 thetic phrase 의 제3음절, topic의 제3음절 등을 각각 나타낸다.

대응표본	평균주파수	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 (양쪽)
thet3	236	23	52	.000
idfoc3	315	23	74	
thet3	236	23	52	.000
info3	300	23	70	
idfoc3	315	23	74	.072
info3	300	23	70	
top3	229	23	55	.000
cfoc3	307	23	71	
top3	229	23	55	.000
ctop3	277	23	60	
ctop3	277	23	60	.000
cfoc3	307	23	71	

[표 5] 주파수 대응표본 T-검정 통계 (Pairs Samples Statistics)

어절 길이에 대한 대응표본 통계는 [표-6]에 요약되어 있다.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정문의 주어와 확인초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결과가 통상적인 유의 수준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표본들의 통계결과가 모집단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대응표본	평균길이 (1/1000초)	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 (양쪽)
thet3	109	25	25	.091
idfoc3	129	25	23	
idfoc3	129	25	23	.000
info3	79	25	11	
thet3	109	25	25	.002
info3	79	25	11	
top3	210	25	90	.027
cfoc3	145	25	34	
cfoc3	145	25	34	.010
ctop3	126	25	22	
top3	210	25	90	.005
ctop3	126	25	22	

[표 6] 어절 길이의 대응표본 T-검정통계 (Pairs Samples Statistics)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화용적 개념들이 피치와 음절길이에서 신뢰할 만한 차이를 보였으나 확인초점과 정보초점의 음성학적 차이는 조사 ‘가’에 주어지는 피치에서보다 음절의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즉 확인초점을 표시할 때 ‘가’의 길이가 정보초점을 나타낼 때보다 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제와 대조주제의 음성학적 차이도 조사 ‘는’에 주어지는 피치의 차이보다는 음절의 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담화)주제를 나타낼 때 ‘은/는’의 길이가 대조주제를 나타낼 때보다 길다는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많은 음운/음성학자들의 주장대로 화용적/의미적 내용이 음성학적으로 실현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료의 제한성과 변인의 통제의 오는 어려움에 따른 신뢰도 확보와 일반화에는 다소 제한이 따르리라고 생각한다. 첫 어절이 격음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피치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런 음성자료에 대한 실험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금까지 애매모호하게 다루어져왔던 의미/화용적 개념들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승현. 1997. 단학. 서울: (주) 한문화.
- 박승운. 1986. 담화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2, 1-15.
- 최규수. 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입자말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Akmajian, A. 1970. *Aspects of the Grammar of Focus in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 1973. The Role of Focus in the interpretation of anaphoric expressions, in S. R. Anderson and P. Kir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d, Rineholt and Winston. pp. 215-226.
- Beckman, M. E. and J. B. Pirrehumbert. 1986.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255-309.
- Dryer, S. M. 1996. Focus, Pragmatic Presupposition, and Activated Propositions. *Journal of Pragmatics* 26, 475-523.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pp. 113-127.
- Gundel, J. K.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 (eds.). *Foc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3-305.
- Gundel, J. K., N. Hedberger, and R. Zacharski.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74-307.

- Fauconnier, G. 1975. Pragmatic Scales and Logical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6, 353-375.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Jun, S.-A. 2000. K-To-BI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 ms.
- Kadmon, N. and F. Landman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353-442.
- Keenan, E. L. and J. Stavi. 1986. A Semantic Characterization of Natural Language Determin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253-326.
- Keenan, E. L. 1996. The Semantics of Determiners,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and Cambridge, MA: Blackwell. pp. 41-63.
- Kim, Myung-Hee. 2001. The thematic Structure of Narrative and Choice of Particle nun in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23.
- Kim, Yong-Beom. 2001. Assertion Strength. *Linguistic Research* 37.4, 799-820.
- Kiss, K. 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al Focus. *Language* 74, 245-273.
- Kuno, S. 1972. Functional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Kuroda, S.-Y. 1972. The Categorical and Thetic Judge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ungmin. 2003.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In W. McClure (ed.) *Japanese Korean Linguistics* 12, 352-364.
- Pierrehumbert, J.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Dissertation, MIT.
- Prince, E. F.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eter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pp. 223-255.
- Rooth, M. 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_____. 1996. Focus, in Salom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Cambridge, MA: Blackwell. pp. 271-298.
- Szabolci, A. 1981. The Pragmatics of Topic-Focus Construction, in Jan Groenendijk, Theo Jansen and Martin Stokhof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Amsterdam: Matematish Centrum. pp. 513-541.
- Vallduvi, E. 1992. *Information Packaging*. New York: Garland.
- Wee, H. K. 1999. *Definite Focu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 Yang, In-Seog.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Linguistic Research* 9.2, 84-122.

접수 일자: 2004년 5월 19일

게재 결정: 2004년 6월 17일